견훤왕릉甄萱王陵 기행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 견훤왕릉 동쪽 산아래의 견훤왕릉공원

▲ 견훤왕릉 공원에서 본 연무읍 육군훈련소 방향

5월 25일 전남 순천에 다녀오는 길에 논산의 견훤왕릉甄萱王陵을 탐방하였다. 사실 탐방探訪이라 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봉심奉審의 심리에 가까웠다. 내가 우리 시조 태사공의 35세손인데 태사공께서 '불공대천不共戴天'이라 지칭하신 견훤왕을 찾아가 봉심한다면 태사공께서 '네가 어디라고 가서 봉심하느냐'고 노여워하시면 어쩔 것인가. 그러나 내가 권가 성이 된 것이 바로 이 견훤왕 때문이 아닌가. 견훤왕이 아니었더라면 태사공께서 어찌 국치國恥를 설하기 위해 병산전역甁山戰役을 벌이셨으며 병기달권炳幾達權을 이뤄 고려태조로부터 사성賜姓을 받았을 것인가. 악명으로든 선명으로든 우리는 견훤왕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천년을 넘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증오를 풀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맹자孟子에 피일시차일시彼一時 此一時라는 말이 있다. 그때도 한때요 지금도 한때라 직역되지만 그때의 일과 지금의 일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시기와 정황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소리다.

논산·천안간 고속도로의 연무나들목에는 '견훤왕릉'이라 쓴 유도표지판이 있다. 이 민자 고속도로가 뚫리고 연무나들목이 생긴 덕에 이 표지판도 서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견훤왕릉의 소재를 알게도 되었다. 전에는 극소수의 사람이나 견훤왕의 무덤이 논산인가 황산벌인가 하는 곳에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 알고 있을 정도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인명사전이나 사서 등에 견훤왕의 능묘가 어디에 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다.

연무나들목을 나와 읍내 쪽으로 1,2킬로쯤 달려가면 읍내의 첫 갈림길이 나오고 거기에서 직진하여 시가의 간선도로인 큰길에 마주쳐 우회전하고 1,2백미터쯤 전방에서 견훤왕릉이라는 작은 표지판을 발견했다. 우회전하는 입구길을 잘못 접어들었다가 되돌아나오며 두셋의 주민 부인에게 물으니, 나이든 부인들은 나의 승합차 옆구리에 '안동권씨'라 쓰인 글씨를 먼저 보고 '안동권씨들이 여기를 자주 찾는다'고 주고받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10여년 전 논산천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나 말고 우리 안동권씨인이 더러 이곳을 찾은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속도로 나들목에 견훤왕릉의 뚜렷한 유도표지판이 설치된 것과는 달리 막상 연무읍 내에 들어가면 교통표지에 그런 것이 거의 없고 중고등학생에게 물어보니 들어본 일도 없다는 듯한 대답이었다. 큰길에서 입구를 제대로 찾아, 왼쪽 아래는 들논인 포장도로를 1킬로쯤 들어가니 조그만 공원이 나오는데 이름하여 '견훤왕릉공원'이었다. 그리고 사방으로 마을을 낀 낮은 구릉 위에 견훤왕릉이 있었다. 구릉의 능 주변으로는 수목이 무성하여 오래도록 민가가 사방에서 이 성역을 침범해 올라오지 못했음을 짐작케 하였다. 그리고 상당히 너르게 평평한 정상의 한편에 오래된 소규모 화장실 건물이 방치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아 간헐적으로나마 탐방객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게 했다.

능은 봉분이 웅장하고 형국의 규모가 큰 것이 경주의 대총大塚에는 못미치지만 그밖의 어느곳 고분에 비추어도 손색이 없었다. 능 앞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에는 '견훤왕릉甄萱王陵'이라 써 있었다. 그러나 그 밑의 영문표기는 'Tomb believed to be Gyonhwon's'라고 하여 '견훤의 것으로 믿어지는 무덤'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된 문화재이고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琴谷里 산 18-3번지였다. 그 표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후백제의 왕 견훤(?~936)의 능으로 전한다. 견훤은 상주 가은현加恩縣(현재 문경시 가은읍) 사람으로 아자개阿慈介의 아들이라 한다. 서기 900년 완산完山(현재 전주)을 도읍으로 정하고 후백제를 세워 한때는 후삼국 중 가장 큰 세력으로 성장하기도 하였으나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아들 신검과의 내분으로 인해 서기 936년 후백제는 고려에 멸망하게 되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걱정이 심하여 등창이 나 수일후에 황산 불사黃山佛寺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은진恩津 조에는 '견훤의 묘는 은진현의 남쪽 12리 떨어진 풍계촌風界村에 있는데 속칭 왕묘·왕총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종시 유언으로 완산이 그립다 하여 이곳에 무덤을 썼다 하는데, 실제로 맑은 날에는 멀리 전주의 모악산이 보이기도 한다. 무덤은 직경 약 10m, 높이 5m 크기의 규모인데, 1970년에 견씨 문중에서 후백제왕견훤릉後百濟王甄萱陵이라는 비를 세웠다.

여기에 쓰인대로 동국여지승람의 은진현조에는 '총묘塚墓'에 '견훤묘甄萱墓'가 특필되고 그 밑에 잔글씨로 '재현남십이리풍계촌 속칭왕묘在縣南十二里風界村 俗稱王墓 : 고을 남쪽 십이리 풍계촌에 있는데 속칭 왕의 무덤이라 한다'고 나와 있다. 옛적에 이곳이 풍계촌이었는데 지금은 금곡리琴谷里라 한다. 풍계촌은 직역하면 '바람부는 경계 마을'이고 금곡리는 '거문고의 골짜기 동네'이다. 바람소리와 거문고 소리가 어울린 이름이니 혹시 견훤왕의 원혼이 내는 울음소리가 거문고나 바람에 실려 퍼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왕릉의 부근 마을에는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의 고가가 있기도 했다. 안내표지판 옆에는 또 하나의 작은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안내문'이라 이름한 이 경고판에는 다음과 같은 금지사항이 열거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후삼국중 가장 강성했던 후백제를 창건한 후 중국의 오·월나라와 대등한 국교를 맺고 후삼국 통일을 염원했던 우리 지역 유일의 왕릉인 견훤왕릉입니다. 본지역 일원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 금지사항

- ●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단 형질 변경
- ●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
- ●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일체의 행위
-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음주가무로 인하여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시 벌칙

- ● 산림법 제11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문화재보호법 제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고판은 논산시장의 이름으로 내건 것이었다. 능의 봉분 왼쪽 뜰에 크게 세운 능비陵碑를 살폈다. 단기檀紀 4303년 경술庚戌, 1970년 정월 22일에 세운 것이니 양력으로는 동년 2월 27일이다. 말미에 '탐사探史 임영원任英源'이라 새긴 것으로 보아 임영원이라는 사람이 사서를 뒤져 고증을 하였다는 뜻이겠고 비문을 지은 것은 청주후인淸州後人 한택수韓澤洙, 글씨는 후손 견영종甄永鍾이 쓴 것이었다. 그 비문 내용을 풀이하면 이러하였다.

일찍이 동사東史를 살피건대 왕은 처음 상주尙州의 가은현加恩縣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그 아버지 아자개阿慈介가 들에 농사를 하러 가면 그 어머니도 같이 나가 김을 매게 되어 아이를 나무 아래 눕혀 놓았다. 마침 큰 호랑이가 내려와 젖을 먹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빨아먹는지라 부모가 보고 기이히 여기며 놀라고 또한 기뻐하며 '장하다, 훤아. 뒤에 우리집을 일으킬 자가 이 아이로다'하였다. 왕이 자라면서 체구가 웅위雄偉하고 지기志氣가 척당倜 하여서는 큰 지략을 가지고 있어 나이 예닐곱에 능히 활쏘기를 하고 무예를 익혀 절륜絶倫하였으며 9세에 대지大志를 품고 당唐나라에 들어가 형세를 엿보고 돌아와서는

▲ 서쪽에서 본 견훤왕릉